

주 제

Dynamic u-Korea의 비전과 정책과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형태근**

차례

I. 들어가며 :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향한 전진

II. 그간의 추진 성과

III. 2006년 정책 방향

IV. 나가며 : Dynamic Ubiquitous Korea 구현, IT839 전략

I. 들어가며 :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향한 전진

‘달리는 차속의 인터넷 - WiBro’ ‘내 손안의 TV - DMB’

2005년은 대한민국에 재주많은 convergence 서비스들이 소개된 해였다. 지하철에서 보고싶은 TV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급한 e-mail을 확인하는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서 가능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IT839 전략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IT기술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IT기술로 누리는 혜택은 이미 각종 국제 기구에서 발표하는 순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IMD 국가경쟁력 지수 중 IT 부문이 포함된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데 이어 11월에는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에서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총 40개 평가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DOI가 인프라 보급뿐만 아니라 기회 제공, 인터넷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것을 감안하면 DOI 1위는 IT 인프라 수준뿐 아니라 향후 디지털 강국으로서 한국의 잠재력을 세계가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IT기술은 국제기구들의 순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도 활약상이 상당하다. IT산업의 대 GDP 비중이 2002년 9.9%에서 2005년 15% 대로 증가하였고, IT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 등 IT 제품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80년대 중반 TDX개발 이후 불과 20년 사이에 이런 성장을 이룬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는 비즈니스 위크지가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와 산·학·연이 긴밀하게 잘 협력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하드웨어로의 편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핵심기술 부족

과 일부 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우리경제의 장점을 활용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들이지만 앞으로 우리 IT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또한 IT 시장의 성숙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IT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 과제 역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II. 그간의 추진 성과

1. IT839 전략

IT839 전략은 IT산업 특유의 가치사슬에 기초한 IT산업 발전프레임으로 지난 2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대 서비스 중 WiBro서비스는 지난 3월 사업자 허가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부

산 APEC에서 성공적인 시연이 있었으며, 위성 DMB는 5월, 지상파 DMB는 11월에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홈네트워크 인증제」 도입을 위한 건축법령의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교통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시작했으며 지난 12월 HSDPA 기술이 적용된 W-CDMA망을 23개시로 확대 구축하였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시군소재지의 디지털TV 방송국 154개국의 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도청소재지까지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3대 인프라분야에서는 광대역 통합망(BcN)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통·방 융합 등의 시범서비스가 지난 9월부터 개시되었고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IPv6로의 체제전환으로 2005년 6월 현재 /32단위 IPv6주소 4,145개의 주소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 사회 전분야의 RFID/USN 보급·확산을 위해 교통, 국방, 물류 등 공공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33MHz 능동형 태그/리더의 개발 등을 통해 RFID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9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2005년 7월에 DMB핵심기술이 유럽표준화기구(ETSI)의 이동형 방송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WiBro 핵심기술이 미국전기전자기술자 협회(IEEE)의 모바일 WiMAX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표 1〉 IT839 전략 분야별 추진 성과

	부 문	주요 추진내용서
서비스 (8)	WiBro	○ 부산 APEC에서 성공적으로 시연(05.11)
	DMB(위성/지상파)	○ 05.5월 S-DMB 상용화 및 05.12월 T-DMB 상용화
	홈 네트워크 서비스	○ 05.8월 홈 네트워크 인증제 및 건축법령 개선 추진
	텔레매틱스 서비스	○ 교통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착수(05.8)RFID
	활용 서비스	○ 민간 RFID 적용 사업장 확대: (04)17 → (05) 57개소
	W-CDMA	○ 서비스 커버리지 (05) 23개시 → (06) 84개시 확대
	지상파 DTV	○ 전국 DTV 방송국 허가 완료(05.10)
인프라 (3)	인터넷 전화	○ 7개 기간 VoIP 사업자 허가 및 서비스 개시(05.11)인
	BCN	○ BcN 시범 서비스 개통(05.9)
	USN	○ 433MHz 능동형 태그/리더 개발(05.2)
	IPv6	○ /32단위의 IPv6 주소 4,145개 확보(05.11)신
신성장동력 (9)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	○ WiBro IEEE 국제표준 채택(05.12)
	디지털 TV/방송 기기	○ 지상파 DMB ETSI 표준 채택(05.7) 및 해외시장 진출
	홈 네트워크 기기	○ UWB 무선1394 핵심칩셋 개발 및 시험 성공(05.12)
	텔레매틱스 기기	○ 개방형 LBS 플랫폼 3.0 기술개발(05.11)
	차세대 PC	○ 플래시블 고성능 태양전지(05.7) 및 입는 컴퓨터 시제품(05.12)지
	능형 로봇	○ 가정용 URC 시범서비스 착수(05.10)
	IT SoC	○ 이동통신용 저전력 핵심 IP 개발(05.12)
	임베디드 SW	○ 10KB 미만 나노 운영체제 개발(05.12)
	디지털콘텐츠	○ 실사 수준 초연급 디지털 액터 개발(05.8)

과거 선진국 추격형 발전에서 벗어나 세계 IT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세계최초로 디지털 캠코더 동영상 전송을 보여준 UWB 무선 1394기술 개발로 무선 홈 네트워킹기술에서 한걸음 나아갔으며 텔레매틱스 기기분야에서는 개방형 LBS 플랫폼 3.0 기술 개발, 차세대 PC분야에서는 플렉시블 고성능 태양전지와 입는 컴퓨터 시제품 개발의 성과가 있었다.

지능형 로봇의 경우 6월에 로봇 시제품 7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일반가정과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2006년에 100만 원대의 국민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IT SoC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용 저전력 핵심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10KB미만의 나노 운영체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실시간 수준의 연급 디지털 액터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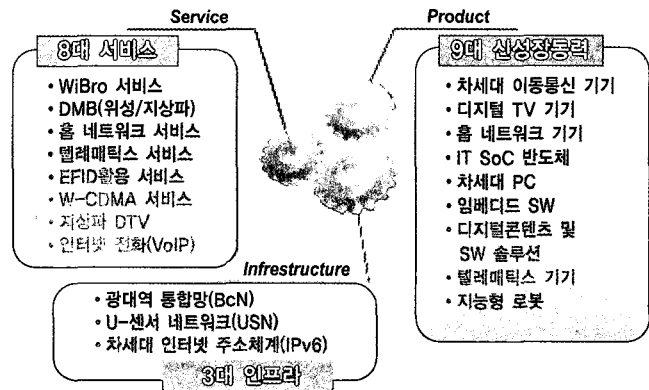
2. SW산업 경쟁력 강화

SW는 세계시장 규모가 하드웨어에 비해 훨씬 크고 그 성장 속도가 빠르며, 군수, 항공, 통신,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의 원가에서 SW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IT산업은 수출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LCD등 하드웨어쪽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5년을 '소프트웨어 산업 도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SW산업 실태조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SW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공공기관 보급 확대와 공공기관 신규서버의 리눅스 채택을 향상 등의 성과를 냈다.

12월 1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SW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통해 분야별 핵심전략을 수립 천명하여 2010년까지 SW강국으로의 도약 비전을 설정한 바 있다.

IT839 전략이란 8대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뜻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인프라→기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가 수직적 가치사슬(value chain)을 이루고 있는 IT산업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인프라-신성장동력(기기)을 연계시킨 것이다. 이 전략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대두로 '네트워크화'와 '디지털 컨버전스'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IT분야가 시장성숙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서 수립되었다.



3. 중소·벤처 생태계의 조성 : IT SMERP

IT 산업의 성장에 따라 IT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출실적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IT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IT산업내 불균형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절실하다.

IT SMERP(IT Small & Medium size Enterprise Revitalization Program)는 이런 문제 인식아래서 건전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IT산업 통계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실태조사, 무반향 안테나실 등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¹⁾의 지원을 확대하였고 51개의 전문협의회를 203회 개최하여 전문협의회별 공통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산 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4. u-IT클러스터 조성

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 품목 중 클러스터화 했을 때 R&D·생산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RFID/USN분야의 클러스터

를 조성중이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클러스터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장 태동 단계에 있는 RFID/USN 산업의 발전 기반 조기 구축, 초기 투자 리스크의 최소화 및 해외 선진기업 유치를 위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RFID/USN 분야의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조성을 계획하면서 그 첫 단계로 재정보호 및 실행계획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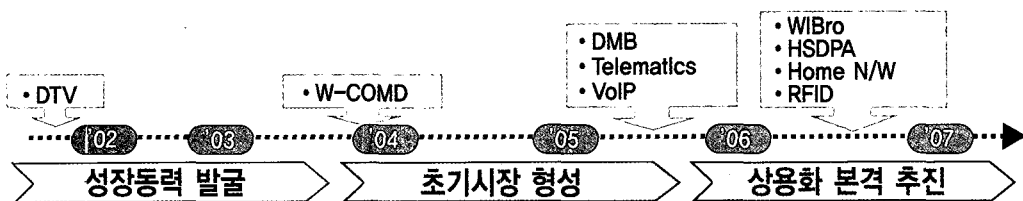
III. 2006년 정책 방향

1. IT839 전략의 향후 추진 방향

1) IT839 전략 업그레이드

IT 839전략이 제시된 지 2년여가 지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이유는 8대 서비스가 초기시장 형성단계에서 상용화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8대 서비스 중 대부분이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기에서 부품/소재 및 서비스로 변화하는 IT산업의 가치사슬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분야에 강조점을 두어 IT839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 : 개별 중소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의 개발 장비, 시험시설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

u-IT839 전략을 2월중 확정,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2) 9대 신성장동력별 2006년 이정표

2006년은 많은 품목의 상용화로 국민들이 IT839 전략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해가 될 것이다.

주요 이정표를 살펴보면 WiBro서비스는 2006년 중 서울과 수도권 7개 내외 시 지역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서비스 개시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부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WiBro서비스의 해외진출시 다양한 통신 서비스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WiBro 시험인증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것이다.

DMB는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허가로 지상파 DMB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MMC(독일), Cebit(미국) 등 유명 방송전시회 참가 및 해외로드쇼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DMB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다.

RFID활용서비스는 전국 서비스 도입의 첫 단계로서 실생활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휴대폰 내장형 RFID(Mobile RFID) 칩과 단말기를 개발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HSDPA전국망이 구축되어 서비스가 개시되며, 정부는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디지털TV 방송은 17개 시·군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디지털TV 방송의 전국확대를 완결하고, 난시청 지역의 디지털TV 방송국 허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RFID/USN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센서, 센서노드 등의 기술개발과 연계한 현장시험을 통해 USN 활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며 기 발굴된 유망분야 중 공공프로세스 개선 및 파급효과가 큰 본 사업 대상과제 3~4개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광대역 통합망(BcN)과 관련해서는 QoS/이동성 지원 라우터와 같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하며 2단계 시범사업 통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의 발굴을 지원하여 가입자 500만명을 확보할 것이다.

IPv6는 전자정부통신망, 유선통신 사업자망에 IPv6 장비의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VoIP, WiBro, 인터넷 포탈 등과 연계한 통합 시범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산장비 및 솔루션의 사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모바일 일등국가를 비전으로 M-1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차세대 모바일 기술·서비스를 시험·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특구를 건설하고 m-Learning 등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 여건을 마련하며 WiBro Evolution, 3G Evolution, 4G 등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모바일 특구의 경우, 적용 기술 및 표준의 제한이 없는 기술자유지역(FTZ: Free Technology Zone)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06년 수립하여 '07년부터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100만원대 국민로봇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는 부품 모듈화, 기기간 호환성 보장 위한 민·관 공동으로 로봇 플랫폼 표준화(RUPI: Robot Unified Platform Initiative)를 추진할 것이며 가정(650가구) 및 공공기관(20개소)에서의 시범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방형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양방향 DMB 송수신 시스템, 입는 헬스케어 시스템, 로봇과 텔레메틱스 시범서비스에 탑재할 임베디드SW, 공개 소프트웨어 데스크톱 OS탑재 확산 등 신성장동력의 개발 및 확산이 추진될 것이다. IT SoC품목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한편 국방부와 공동으로 로봇, 센서 네트워크 등 국방과 IT기술이 결합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첨단 기술의 초기시장이 창출되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IT839전략의 수요측면이 보장될 것이다.

3) IT SoC/부품경쟁력 강화

현 우리 IT산업구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는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 평균이 0.37인 반면 휴대전화는 0.49, 컴퓨터는 0.55, 반도체는 0.53으로 IT제품 수입유발계수가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향후 IT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 IT 산업 발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IT SoC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바 2006년에는 이를 위해 힘쓸 것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IT SoC 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데 IT SoC 중소기업의 「창업 → 시제품 설계·검증 → 제작·시험 →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 중소 IT SoC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설계전문기업(fabless)이 적기에 IT-SoC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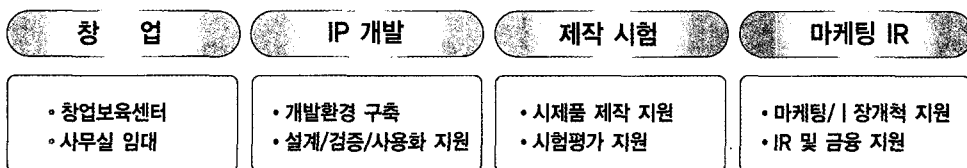
두 번째로 IT-SoC/부품 연구기반의 확충과 연구수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T부품·소재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을 안

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에 IT융합부품연구소를 설치했으며 IT부품·소재 연구과제의 대형화, 단계평가 도입 등을 통해 현행 과제 수행방식(Project Based System)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다.

세 번째로 IT 부품·소재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IT수출 주력 제품의 핵심부품 중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11개 전략 IT부품을 산업계 주관으로 개발하고, 'IT839 시스템-부품 체계도'에 따라 도출된 78개 기초·원천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시스템-부품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미래 IT기기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RF부품, 미소전자기계시스템(MEMS), 광부품, 신소재·신소자 등 4대 IT선도부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미래 IT융합서비스의 핵심 부품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SW산업의 적극적 육성

IT839의 인프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먼저 IT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City, u-Defence 등 대형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공공 SW사업 발주시 전문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예산편성, 계약체결, 개발관리 등 SW사업 전반에 걸친 「SW사



IT-SoC 산업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예 산 ('05 : 656억 → '06 : 1,052억)		'06 주요 개발과제
국산화부품	154	→ 314	이방성 도전접속체, 휴대폰 LPD모듈 등
IT-SoC	318	→ 525	휴대폰 저전력 모뎀 칩, 네트워크 플랫폼SoC등
선도 공통부품	-	→ 50	iMEMS, 실리콘 포토닉스
IT융합부품	184	→ 413	오감통신도우미, 건강환경도우미

업 발주관리 표준지침을 제정·시행 하여 'SW제값 주기'가 정착되도록 SW공공구매제도 및 관행을 혁신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술력 있는 패키지SW 기업의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개SW의 도입·확산시키고, SW사업자 선정시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우대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R&D 자금 조달 확대,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지원, 국제품질인증 획득비용 지원, 공통지원시설의 고가장비 지원업체 확대, 「임베디드 SW기술지원센터」설립 등으로 중소 SW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세 번째로 SW관련 인력은 많으나 아키텍트급 고급인력이 부족한 SW업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SW 인력 개발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초중고 컴퓨터 교과과정 개선을 통해 기본적 SW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대학교과를 실습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재직자들을 위해서는 「분야별·수준별 SW 직무능력 표준(개발예정)」에 바탕한 SW전문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네 번째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첨단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인공지능 게임기술, 콘텐츠 유통·보호기술 등 디지털콘텐츠

스와 관련한 미래 핵심기술의 개발 및 산업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쌍방향 데이터 방송, 이동형 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 등의 차세대 콘텐츠 개발 촉진을 위해서 「컨버전스 콘텐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같은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를 확충하고, 콘텐츠의 현지화를 지원하며,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IT SMERP정착 통한 벤처 생태 환경 재조성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IT산업내 불균형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 IT SMERP는 지속될 것이다.

먼저 개별기업의 차원의 경쟁력 제고 측면보다는 벤처 문화, 창업과 퇴출, 자본 시장, 기업간 관계 등 기업 생태계의 건전화 및 재조성에 정책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규약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M&A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설명회 지원·벤처캐피털 전문성 강화·통신사업자 공동펀드 활성화를 유도 등을 통해 IT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견인할 것이다. 더불어 윤리·투명경영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IT SMERP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장래성 있는 기

업에 대한 선택하고 그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 제공, R&D역량 증진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IT중소기업 수를 증가시킬 것이고 우수 전문협의회(Focus Group)와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면서 해외진출 등 각종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전문협의회별 애로사항 해소 노력을 지표화하고, 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IT SMERP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정부 출연사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개발과제 선정시 벤처 캐피탈 참여를 확대하고 과제비중의 75%이상을 IT839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시킬 것이다. 기술 중심의 IT기업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며 개별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신규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IT인력 추천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DB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정책과정에 전문협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여 정부가 시장밀착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4. IT 클러스터조성

2005년 「누리꿈스퀘어」가 착공됨에 따라 2006년에는 임대, 분양, 기업 입주조건 등 운영전략을 마련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해외 유망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SW 등 고부가가치 소프트 기업을 위한 최상의 공통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공동제작센터 내 첨단설비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표 2〉 누리꿈 스퀘어 개요

시 설	조 성 내 용	연면적(지상층)
IT R&D센터	해외 글로벌 IT 기업 R&D 센터 국내 IT 기업 R&D 센터,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10,813평(16층)
IT Biz센터	IT 관련 제품 생산·유통·서비스 기업 로펌, VC, 회계사무소, 컨설팅업체, 교육기관 등	12,323평(22층)
공동제작센터	모바일 테스트센터, S/W 인증센터, SFX 스튜디오 렌더팜실, 편집실, 미디어변환실, 이러닝제작실 등	3,275평(4층)
디지털 Pavilion	IT 신성장 동력 Zone, 신제품전시 Zone, 기업관 미래 IT 체험 Zone, 디지털영상관 등	2,068평(4층)

송도의 u-IT 클러스터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기본설계에 본격 착수하되 클러스터 초기 성장거점으로 「RFID/USN 엔지니어링 센터」(송도 테크노파크)를 조기설립하여 종합시험, 시제품 패키징 등의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를 제공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센서, SI 등 분야별 국내외 우수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표 3〉 송도 u-IT 클러스터 개요(안)

시 설	조 성 내 용	연면적(지상층)
USN Fab	USN 칩 제작을 위한 청정실, 설계실	○ 3,990평
시제품 패키징/ 제조 시설	수동형·자동형 칩/센서 패키징 설비, 칩/안테나 및 센서/태그 조립 설비 등	○ 220평
종합시험센터	무반사 안테나 측정실, 환경/신뢰성 시험실, 성능 시험 센터, 실적용 시험센터	○ 2,300평
엔지니어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실, 공동 설계 및 시험실	○ 380평

5. 정보통신 연구개발시스템의 혁신

IT839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R&D의 기획과 실행, 성과확산에 걸친 전략적인 R&D 전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T R&D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단순 기술개발 전략에서 표준화 및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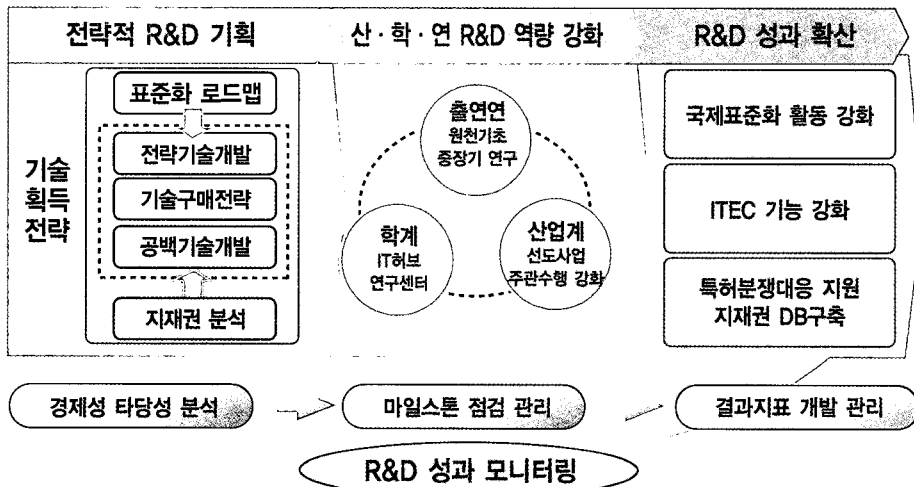
재산권 전략을 통합·연계한 포괄적 기술획득 전략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하여 연구개발자 중심의 특허권리분석을 추진하고 IT 지적재산권(IPR) DB 구축 등 IPR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것이다.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표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IT기술개발 성과를 ITU, 3GPPs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IT R&D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해 R&D의 경제성 및 타당성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모니터링 가능한 R&D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연구개발 시스템의 핵심은 훌륭한 IT인재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있다. 따라서 전국 190여개 대학의 IT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IT교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대학의 정보통신연구개발센터(ITRC)를 확충하고 해외 고급연구인력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장학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는

데 힘쓸 것이다. 또한 IT인력의 보직경로 개발 및 관리지원을 위한 「IT전문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IT전문인력 신기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이다.

IV. 나가며 : Dynamic Ubiquitous Korea 구현, IT839 전략

정보통신부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과 여러 정책의 궁극적 지향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여가시간을 즐기며, 일상생활의 잡일을 덜수 있도록 해주어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은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입을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은 고령화시대 늘어나는 의료비부담을 줄이며, 지능형 청소로봇과 RFID·홈네트워크를 활용한 식음료 자동주문 등은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줄여서 저출산 현상의 완화도 가능케 할 수 있다. 생



산현장에서는 고도화된 IT기반이 접목되면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제로 눈앞에 구현됐을 때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 보다 더, 상상이상의 변화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IT839 전략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원천기술과 경쟁력 있는 제품은 CDMA상용화가 우리 IT산업 도약의 계기가 되었듯 IT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비쿼터스 사회라는 비전을 토대로 한 전략들을 실행하는 일이다. 진정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정보보호나 정보격차 등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비전과 전략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해나간다면 나간다면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씩씩한 전진을 통해 10년후 세계의 유비쿼터스 흐름을 선도하는 u-Korea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형태근

- 1979년 제22회 행정고시
- 1980년 체신부
- 1985년 체신금융국 기획과, 환예금과
- 1991년 경주우체국장
- 1992년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 1994년 미국 국제위성통신기구 파견

- 1996년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과장
- 1998년 정보화기획실 초고속망기획과장
- 1998년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
- 2000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파견
- 2000년 경북체신청장(개방형임용)
- 2002년 "
- 200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파견
- 2003년 감사관
- 2004년 국제협력관
- 2004년 정보통신협력국 정보통신협력국장
- 2005년 정보통신정책국장